

남편의 수감 생활 및 출소 과정에서 경험하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 자녀의 발달수준을 중심으로

Child-rearing Experience of Ex-offenders' Wives: Focus on Developmental Stage of Children

진지열, 이동훈, 양하나, 김주연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Ji-Yeol Jeon(yeori102@hanmail.net), Dong-Hun Lee(dhlawrence05@gmail.com),
Ha-Na Yang(hana0813@gmail.com), Ju-Yeon Kim(kingbutterfl@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출소자 아내들이 자녀 양육 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생후 1개월~6세)를 둔 수감자의 아내들은 어린 자녀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와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7~17세)를 둔 출소자 아내는 남편의 수감이라는 충격에 더하여 학부모의 역할을 새롭게 수행해야 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 및 학교 적응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기 청소년/성인기 자녀(18~20세)들은 꿈을 한창 펼쳐가야 할 시기에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들을 위해서는 자녀가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출소자 자녀라는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소진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독립적 인격체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출소자 아내 | 수감자 아내 | 자녀양육 | 발달단계 | 근거이론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17 ex-offenders' wives who is receiving housing support from the Korea Rehabilitation Agency to understood the difficulties child-rearing experiences with the grounded theory. Based upon the research outcomes, supporting that needs for prisoners' wives who feel a huge burden on taking care of infants and preschool children by themselves was discussed. The prisoners' wives with children at school age and initial/middle adolescent need to get strong support due to not only the shock about husbands in prison but also the burden and stress that should follow the role as parents of students. Those late adolescent/adulthood who were supposed to follow their dreams, were required for their financial and emotional sacrifice. Result indicates children need to get support to form the right identity, not to get exhausted or shrink from being stigmatized and prejudiced as children of released prisoners.

■ keyword : | Ex-offender's Wives | Prisoner's Wives | Child-rearing | Developmental Stage | Grounded Theory |

I. 서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 인원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발생은 2005년 1,860,119건에서 2014년 1,933,835건으로 4.0% 증가하였고 검거인원은 2005년 1,761,754명에서 2014년 1,879,548명으로 6.7% 증가하였다[1]. 또한, 2014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는 하루 평균 50,128명으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5만 명대를 넘었고[1], 지난 10년 동안 수용자 약 65,000여명은 석방되어 사회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2]. 특히, 수용자의 56.4%는 자녀가 있으며 [3] 전체 수용자의 90%가 남성으로 나타남에 따라[1],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성 수용자의 수용률 증가는 가족의 기능과 구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장이 수감된 경우 남은 가족들은 범죄자 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2], 수용자, 피해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수용자 가정의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4].

가족 간 오랜 기간 동안의 분리는 가족을 위기에 처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5], Boss[6]는 위기가정에 대해 가족이 당면한 문제가 가족의 문제 해결 역량 수준을 넘어 가족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주어진 역할이나 과제 수행의 어려움,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능력 상실, 타인 돌봄 능력 결여로 가족구성원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가족의 존립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연희, 전영실 그리고 김영식[7]은 수용자 가족에 대하여 가족구성원의 수용으로 인해 가족과 강제적인 분리를 경험하여 가정 기능이 약화되는 위기가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렇듯 수용자의 가족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수용으로 인한 가족의 강압적인 분리가 이혼이나 다른 형태의 부모-자녀의 분리보다 더 해로울 수 있으며[8], 자녀들의 사회·정서적 건강에 해를 끼쳐 부모-자녀 유대감에 지장을 준다고 밝혔다[9][10].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배우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한 부모 가정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수용자 가정의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인한 정서적 문제의 부적절로 인한 부정적 행동 문제 등 한 부모 가정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유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수용자 아내들은 남편의 수용이라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속에서 생계를 위한 벌이와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12].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양육은 경제적 가장으로서의 역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상실감을 돌보아 주는 정신적 버팀목 역할까지 해주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13], 이러한 어려움이 자녀들에게 표출되면서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4]. 특히, 가장의 수감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은 대부분 모자가정으로, 대다수가 수입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많은 수감자 아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12]. 실제로, 국내 선행연구[3]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의 경우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수용자 및 출소자 가정은 월 소득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가정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의 극빈층도 10명 중 1명 이상(13.4%)으로 나타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수용으로 분리를 경험하는 자녀들은 불안, 수치심, 불면증, 우울, 죄책감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며[15], 분노, 공격, 적개심의 표출 등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16-18]. 아버지의 수감은 가족해체, 빈곤, 주거불안정 등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에 위협요인으로 인식되는데 [19][20], 특히 자녀들이 경험하는 결정적 변화인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들에게 포괄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21][22]. 수용자 자녀는 부모 역할의 부재, 가정의 기능 상실, 부모 행동의 모방 등으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며[23-29], 수용자 자녀들이 범죄자가 될 확률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였을 때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 Kampfner[1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구금은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며, 수치심, 사회적 낙인, 경찰과 법 체제에 대한 불신감, 발달장애, 주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 학대와 방치, 학교 성적하락, 대인관계 문제, 비행에 연루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체포와 수용은 자녀에게 트라우마가 되어 자녀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4]. 발달과업은 각 발달단계에서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반드시 획득해야 할 기술이나 능력으로, 만일 기회를 놓치거나 실패하면 다음 단계의 발달에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에도 문제가 생긴다[31]. Kampfner[17]에 의하면, 7살 이하의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 체포 상황과 관련한 플래시백과 악몽을 경험하며, 중학교 연령의 경우 부모 체포 당시 대부분 방과 후 빈집으로 돌아온 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친척집이나 보호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 사실에 대해 감추는 ‘모의된 침묵(conspiratory of silence)’과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들 또한 수용자 자녀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한다. 미국의 경우, 발달 모델(developmental model)을 사용하여, 각 발달 단계별로 수감자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유의사항 또는 시기적절한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4]. 예를 들어, 0-2세 자녀는 부모와 유대형성의 손상으로 인한 신뢰와 애착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멘토-멘티 간 유대감 형성에 중점을, 15-18세 자녀는 부모와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조기 종결, 세대 간 범피 가능성 증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멘토는 안내와 지지자의 역할을 제시한다.

이처럼 수감자 자녀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부모들이 수감 기간 동안 직면한 생활환경, 자녀 발달 측면에서 수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범죄 대물림을 막고 남겨진 배우자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주의 한 양육전문단체에서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 및 양육비용의 일정 금액을 제공해주며, 수용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집중훈련 및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33]. 독일의 경우, 수용자가 형벌을 받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회에 혼자 남겨진 수용자의 배우자는 홀로 경제활동이나 자녀 양육을 해야 하는 등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노동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자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감시설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공무원 또는 명예직 상담자들이 복지 상담에서부터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시 수감자나 자녀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 함께 치료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34].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10월 27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서울대학교의 여러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수용자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위기수용자가족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국내 수용자 및 출소자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아직까지도 미비하며, 그들의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홀로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출소자 아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제대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35]. 수용자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편 수감부터 출소 이후까지 자녀의 발달 수준별로 출소자 아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남편의 수감부터 출소 이후까지 자녀발달 수준별로 아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내용, 과정, 그리고 결과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론 중 근거이론(grounded theory)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근거이론은 인간 경험의 주관적 영역을 탐색한다는 면에서 기타 질적 연구와 맥을 같이 하지만 특정한 상황에 관한 추상적인 분석 구조를 생성하거나 발견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36][37]이 있기 때문에 출소자 아내들이 지각하는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른 자녀 양육 경험을 분석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용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용자 및 출소자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궁극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범죄자 가족이라는 주홍글씨를 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는 수용자 및 출소자 아내들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남편의 수감 및 출소 이후에 아내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발달 단계별로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이다.

II. 방 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17명의 출소자 아내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7명, 40대 5명, 50대 4명으로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주로 일용직이나 단순노동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경기/인천, 경상권, 강원권, 전라권, 충청권이며 모든 연구참여자자는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생후 1개월~6세),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기(7~17세), 후기 청소년/성인기(18~20세) 자녀를 두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남편의 연령대는 20대 1명, 30대 4명, 40대 7명, 50대 3명, 60대 2명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출소자 아내들의 배우자는 폭행(4명), 사기(4명), 방화미수(1명), 음주운전(1명), 강도(3명), 마약(1명), 횡령(2명), 절도(1명) 등의 이유로 수감되었으며, 수감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이다. 소개받은 20명의 대상자들에게 연구진이 전화로 본 연구의 목적과 면담주제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물어 이에 동의한 최종 17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 녹음과 축어록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전달하였고, 연구참여자의 이름 및 지명은 익명으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연구참여자자는 인터뷰 중에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언제라도 연구에 대한 참여

를 종료할 수 있음을 사전에 전달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동의서를 받았으며, 소정의 인터뷰 비용을 지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출소 후 평균 18개월(최소 3개월 ~ 최대 36개월)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배우자들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절차 및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2.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는 A 대학교에서 수행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14년 출소자 가정복원을 위한 모델작업과 모델유형에 따른 심리치료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2015년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연구>를 수행하면서 취합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심층면접 자료는 기존에 수감자 아내들의 경험[38]과 출소자 아내들의 경험[39]에 관한 연구 등에 활용된 바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 진행되었다. 분석은 남편의 수감과 출소 이후 아내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절차 및 연구윤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서 자료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40]의 평가기준(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하여, 상담전공 교수 1명, 상담전공 박사과정 1명, 상담전공 석사과정 1명의 연구자들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자료는 Strauss와 Corbin[41]이 제안한대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에 따라 자녀의 발달 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수집원의 삼각검증을 거쳤으며, 교정전문가에게 내용을 보내어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분석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박사 1명으로부터 감수를 받았다.

III. 결 과

1.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에 관한 기술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경험 면담자료를 줄 단위로 분석하고 개념군을 발견하여 이를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좀 더 추상화된 하위범주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20개의 개념과 12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0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표 1.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기술

개념	하위범주	범주
남편 합의금을 갚기 위해 임신한 몸으로 일함	남편 수감 후 생활고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설	슬퍼할 겨를 없이 맞게 된 생활고
취학 전 아동 자녀를 돌보며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슬퍼할 겨를이 없음	수감된 남편을 자녀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노심초사 함	어린 자녀의 미래가 염려됨
출소 후에는 어린 자녀가 남편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닮아갈까 염려됨	출소 후에는 어린 자녀가 남편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닮아갈까 염려됨	자녀 미래의 걸림돌 남편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극심한 우울로 죽고 싶은 마음을 느낌	혼자서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만 친정 부모님에게 열려를 끼칠 것 같아서 남편의 수감을 알리지도 못함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며 고립과 우울을 경험함
자녀를 돌보주지 않고 친정으로 가게 만든 시택에 대한 원망스러움, 친정도 없었다면 아이를 버렸을지, 남편을 영영 안 뵈었을지 확신하기 어려움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를 버리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들을 버티나감	친정의 지원으로 자녀양육을 원 가족에 손 뻗기
구(區)에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부모교육 받고 도움을 받음	국가(區)에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부모교육을 받음	국가의 지원 프로그램
남편과 인연을 끊으려 연락을 단절하기도 했으나 고된 육아를 경험하며 남편을 다시 기다림	원망 속에서 남편 기다리기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한 남편과의 불가피한 연대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졌음에도 자녀가 셋이다 보니 혼자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 힘들 때 종종 면회 갑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수감된 남편이라도 의지하게 됨	남편의 수감
어린 자녀가 없었다면 이혼했을 것	무고한 수감생활이지만 자녀에게는 알려지 못함	어린 자녀에게 전하기 어려운 남편의 수감
취학 전 아동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남편이 무고하게 수감생활을 했음을 알려주려 함	남편이 어린 자녀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삶의 동기가 되어주는 어린자녀

개념	하위범주	범주
남편 수감 직후 받을 수 있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혜택이 있었는데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함	방학기간에 무료로 아이들을 봐주는 센터나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다른 아이들은 방학 때 학원이라도 다니지만,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방학기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음	자녀 양육 정보부족 대체 양육자 지원이 요구됨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바람	가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바람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희망함
금전이 필요함.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편 직업	금수목 취업이 어려워짐(노가다도 교육받아야 함)	출소한 남편의 취업이 시급함
남편의 수감직후 돈 버는 사람이 사라짐	남편의 수감직후 돈 버는 사람이 사라짐	가장 경제력의 부재

슬퍼할 겨를 없이 맞게 된 생활고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수감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했기에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합의금을 갚기 위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거나,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며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였다.

“그러니까. 뭐. 슬퍼하거나 이럴 새가 없었어요. 애기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런 감정 같은 것 추스를 새가 없이 바로 뭐 애들을 딱 돌보고 있어야 하니까.” (연구참여자 15)

자녀 미래의 걸림돌 남편

남편 수감 중 아내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고된 생활을 이어갔지만, 심적으로는 남편의 수감으로 인해 어린 자녀가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실제로, 출소 이후에는 남편의 문제행동이 자녀양육에 걸림돌이 되었다. 술을 마시고 집에서 화풀이를 하거나 거친 욕설을 내뱉는 남편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항상 노심초사 하였다.

“근데 뭐 한번 싸우고 화가 나면 일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요. 저는요. 그런 꼴을 보이면 집에서 술 마시고 애 앞에서 그런 행동하는 거 나는 보기 싫어하거든요. <중략> 그 면에서 조금 상담을 받아서 좀 치료했으면 좋겠어요. 애 봐서라도...

왜냐하면 애도 똑같이 언제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까 언어 쪽에도 그렇고.” (연구참여자 1)

극심한 두려움과 우울에 접철된 아내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수감이후 자녀와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상황에 망연자실 하였다. 부담감이라는 표현으로는 답을 수 없는 무게가 마음을 짓눌렀다. 연구참여자들은 남겨진 어린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되레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리기도 하였고, 혼자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9는 당시 매일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그 때 아이가 되게 어렸잖아요.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세요? 아이. 그냥 눈물이었어요. 애가 너무 딱하고 그 때 저도 그 때는 너무 황당하게 겪어가지고 정말 무슨 정신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으로 다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매일매일 죽고 싶었는데 근데 매일매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때 여파가 지금도 오는 데 애만 보면 이제 조금 안쓰러운 게 많아요.” (연구참여자 9)

대체 양육자가 필요하여 원가족에 손 뻗기

연구참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기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친정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였다. 친정 부모님이 안계셨다면 어린 자녀를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보고할 정도로 연구참여자들에게 원가족은 손 뻗을 수 있는 유일하고, 고마운 존재였다.

“저는 그래도 지금 많이 지났는데도 생각하면은 친정 식구가 없이 제가 고아여서 정말 시택의 외면을 받고 그런 황당한 일이 이제 일어났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애를 버리고 갔을지 애를 안고 그냥 신앙을 안붙 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신앙이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리고 신뢰가 있으면 기다려 보라고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도망을 가든 이혼을 하던 애를 위해서 선택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연구참여자 9)

국가 지원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은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외롭고 막막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육아 교육 프로그램들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부터, 자녀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까지 참여하면서 자녀양육에 큰 도움을 받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힘든 생활들을 공감받기도 하였다.

“혼자 있으면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데 나오면 웃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주 여럿이 모이는 데를 자주 오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12)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한 남편과의 불가피한 연대

연구참여자들은 홀로 육아를 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극심했지만, 한편으로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던 유일한 의지처이기도 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불가피한 연대를 선택한 연구참여자들은 남편과의 신뢰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출소가 기다려졌다고 보고하였다.

“애들 아빠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그렇게 되니까 믿음은 다 깨지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애들 셋 놓고 어떻게 할까 말도 되게 많았어요. 집에서 어떻게 애들 셋 할까. 그런데 저 혼자서 어떻게 못하잖아요. 애들 셋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힘들었을 때 한 번씩 찾아가지고 면회 가고.” (연구참여자 14)

어린자녀에게 전하기 어려운 남편의 수감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자녀에게 남편의 수감을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는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수감사실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네들이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가지고 모든 것을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했을 때 그 때 가서 아빠 그 때 그랬다고 얘기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어린 나이에 굳이...”(연구참여자 10)

삶의 동기가 되어주는 어린 자녀

남편이 출소하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은 어린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려 하였다. 자녀는 가족의 중심에 있었고 목표가 되어 있었다.

“애기들은 크고, 자기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이리니까 좀 급한 마음에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 왔는데, 이번에 나와서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알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5)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희망함

연구참여자들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정작 국가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이 수감되면서 가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양육자 지원을 희망했고,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받길 바라고 있었다.

“근데 그 때는 몰랐던 게 저희 신랑이 잘못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있었다더라고요. 있었는데 원체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부모 가정에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등록을 하면 좀 더 혜택을 일찍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연말에 신청을 하는 바람에 혜택을 못받았어요.” (연구참여자 9)

가장 경제력의 부재

수감된 남편으로 인한 생활고는 물론이고 출소한 이후에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였다. 노가다조차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과 출소자 남편의 직장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했다.

“근데 그거를 뭐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금전이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빠 직업도 그렇고, 요즘에는 노가다도 교육 받아야 한데 그러더라고요. 교육 받아서 무슨 증이 나와야 그 증을 갖고 다녀야지 일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무나 못 써준다는 거에

요 하다못해 그런 인력까지도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교육이야 받으면 그만이지만 사회가 그 만큼 점점 아무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져 간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15)

1.1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에서는 개념, 하위범주, 범주로 분해한 자료를 패러다임 모형에 의거하여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출소자 아내의 영유아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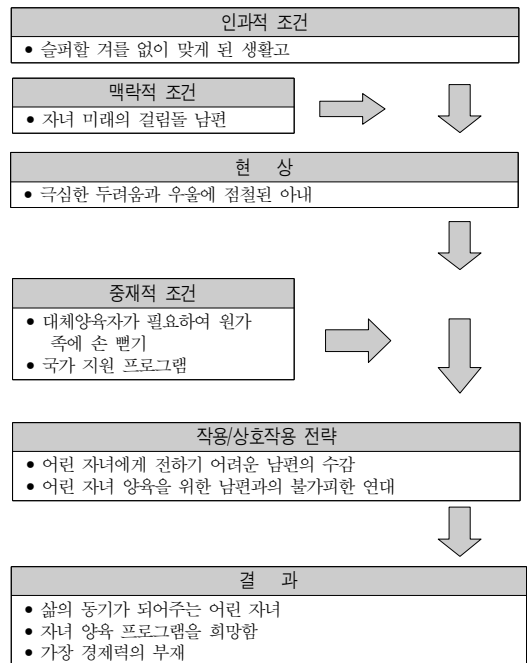


그림 1. 출소자 아내의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원인이 되는 현상들로 구성된 것이다 [41]. 본 연구의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양육 경

협에서 인과적 조건 속성과 차원은 [표 2]와 같다.

표 2.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슬퍼할 겨를 없이 맞게 된 생활고	강도	강함-약함

맥락적 조건이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사고를 의미한다[41]. 본 연구의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양육 경험에서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3]과 같다.

표 3.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녀 미래의 걸림돌 남편	범위	전부-일부

현상이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중심생각이나 사건 현상으로 연구참여자들에게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41].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4]와 같다.

표 4.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극심한 두려움과 우울에 접칠된 아내	깊이	얕음-깊음

중재적 조건이란 구조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절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41].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5]와 같다.

표 5.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대체 양육자가 필요하여 원가족에 손 뻗기	강도	강함-약함
국가 지원 프로그램	기간	지속적-일시적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재적 조건에 영향을 받아 현상에 대처하거나 이를 조절하고 다루는 의도적 행위이다[41].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6]과 같다.

표 6.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어린 자녀양육을 위한 남편과의 불가피한 연대	적극성	적극적-소극적
어린 자녀에게 전하기 어려운 남편의 수감	강도	강함-약함

결과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수행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41].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7]과 같다.

표 7.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삶의 동기가 되어주는 어린 자녀	강도	강함-약함
자녀 양육 프로그램을 희망함	기간	지속적-일시적
가장 경제력의 부재	영역	전부-일부

2.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기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경험은 최종적으로 30개의 개념과 15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3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표 8.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기술

개념	하위범주	범주
괴로워하는 자녀에게 말로 자녀를 다독여 줄 수 있는 게 전부라 미안함	현장 성장기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	자녀에게 줄 것 없는 빈주머니 신세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들 가끔 피자 사주는 것조차 못해 줌	수감사실 인지 후 자녀가 힘들어 함	수감사실을 알고 방황하는 자녀
자녀가 처음엔 멍하고 별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또래 친구들 아빠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상담 받고 온 날은 눈이 밤탱이가 되도록 울고 울	수감사실 인지 후 자녀가 힘들어 함	수감사실을 알고 방황하는 자녀
자녀가 반듯하게 사회생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공부를 안 해 걱정스러움	소홀해진 학업	수감사실을 알고 방황하는 자녀
남편이 수감되면서 경제적 생활고로 인해 사교육비 지원이 어려워지고 학교공부도 소홀해 짐	수감사실 인지 후 자녀가 힘들어 함	수감사실을 알고 방황하는 자녀
남편 수감 중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지만 생활비를 벌러 나가지 않고 자녀 교육에 몰두한 삶을 살아감	자녀 교육이 삶의 전부가 됨	생활고 속에서 홀로 자녀의 학업 지원하기
자녀는 자신이 지켜야하는 존재라는 무거운 책임감에 지쳤을 때, 자녀를 위해 애쓰는 자신에게 짜증내는 자녀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도리어 자녀가 자신을 살아가게 해 줌을 깨달음	지켜주어야 할 존재에서 위로가 되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깨달음	삶의 위로가 되어주는 자녀

개념	하위범주	범주
친정 언니가 화장품, 밀반찬 등 엄마처럼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면서 제일 큰 버팀목이 되어 줌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현실적-정서적 지지	자녀양육에 필요한 친정인원
어찌되었든 버티고 견뎌내며 가정을 유지해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주는 친정 엄마께 감사함	자녀에게 상담 및 멘토 등을	자녀의 학업과 정서적 친정식구
공단의 도움으로 개인 상담을 받으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유됨을 경험함	국가로부터 지원받음	안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
남편은 아내가 함께 경제생활을 하길 바라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서 아이들만큼은 똑같은 삶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살림을 하는 아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함	자녀 교육이 삶의 우선순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 생각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할지 고민함	자녀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수감사실을 드러냄	자녀 특성 및 상황별 수감사실 고지
자녀들이 커서 가정을 이뤘을 남자아이들은 보이지 않게 아빠를 닮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리기로 함	자녀 연령을 고려하여 남편 수감사실 알리기	자녀 연령별 수감사실 고지
아버지의 수감으로 집안 사정이 힘들어져 어머니가 식당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함	자녀를 위해 남편과의 교류를 이어감	아버지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자녀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수감사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녀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을 희망함	자녀양육에 절실한 교육비 및 생계비
3년이라는 공백을 외국에 나갔다는 식으로만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어 자녀에게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설명함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음	
경제적인 상황을 자녀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 큰아이에게만 남편의 수감사실을 털어놓고, 둘째, 셋째 아이에게는 아빠가 배타고 일하러 갔다고 이야기함	대학원생 과외의 지속적인 지원 동사무소에서 방과 후 지원을 받음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국가와 학교의 지원을 바람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준다 해도 아버지 있는 가정환경만 못함	참고서나 교복은 학교 일정에 맞춰서 지원해줬으면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
복부복지 쪽에서 먼저 전화로 지원에 대해 알려줌	아내와 남편의 취업지원을 희망함	취업지원이 시급함
자녀들이 약기를 배운다면 자신들의 상처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해주지 못함	출소자 취업이 시급함	
공과금을 내는 부분이 힘들었음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합쳐서 지원 받지만 너무 적다는 생각(40만원 지원받음)		
한부모 가정으로 지원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음		
대학원생 과외의 지속적인 지원 동사무소에서 방과 후 지원을 받음		
인터넷 교육지원 바랍(대학생이 와서 체크해주는 방식으로)		
참고서나 교복은 학교 일정에 맞춰서 지원해줬으면		
아내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 필요		
출소자 취업이 시급함		

자녀에게 줄 것 없는 빈주머니 신세

수감자의 아내들은 남편의 수감직후부터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에게 과자조차 사줄 수 없는 처지가 아내들에게는 큰 아픔이었다. 연구참여자 7의 경우 자녀가 다른 집의 아이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할 때에도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로 자녀를 다독여주는 게 전부인 자신이 그저 초라하게만 느껴졌다.

“근데 저는 그랬죠. 다 집에 가면 괴로움 없는 사람은 없다. 밖에서 봐가지고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지. 인간고가 없으면 경계고가 있을 거고 다 하나씩 괴로움은 다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다독여 주는 것 밖에 없었죠. <중략> 그래도 저는 힘들어도 애들 한 번씩 숨 쉬게끔만 들어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한 번씩 과자를 사준단가. 저거 원하는 걸 한 번씩 해주는 그러는 걸. 뭐 자주는 못 해줘도, 그렇게는 하려고 애썼는데 그것마저 없어서 버리니까.” (연구참여자 7)

수감사실을 알고 방향하는 자녀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남편의 수감 사실을 알고는 대부분 힘들어 하였다. 연구참여자 7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들은 직후에는 멍하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다른 또래 친구들의 아버지와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상담을 받고 온 날이면 평평 울면서 돌아오기도 했다.

“좀 멍하니 그렇더라고요. 좀 멍하다가 뭐 그런 일이 다 있냐고, 근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하면서 힘들어 했어요. <중략> 친구들이 아빠, 누구 아빠는 이러는데, 누구 아빠는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중략> 이해를 잘 하는 듯이 보였거든요? 지나고 난 뒤에 오히려 청소년문화의집 저기서 상담 받고 이랬거든요? 하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밤탱이가 되어 가지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하니깐. <중략>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아빠 얘기를 학교 가서 듣고 하면 우리 아빠랑 너무 틀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아버지 수감 당시 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들이었다.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방황하기도 하였지만, 학업에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었다.

“애들이 잘 못 크는 건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좀 반듯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해요.” (연구참여자 7)

“교육이죠. 교육 그냥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다 학원가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못가니깐. 수감 중에는 못 보냈죠. 생활하기도 벅찼으니깐. <중략> 성적이 많이 뒤떨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니고 그랬었는데 안 다니니깐 공부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1)

생활고 속에서 홀로 자녀의 학업 지원하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경제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출소한 이후 남편은 아내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집의 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랐지만, 아내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자녀 양육에 힘을 쏟기 위해 살림에만 전념하였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 생각하여 자녀 양육에만 전념을 할지 아니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아내들도 있었다.

“중요한 거는 애들 쉬기에는 제가 벌러 가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바깥 생활을 해버리면 가정이 안 지킬 것 같아서요. <중략> 근데 저는 제가 살림도 하고, 밖에서 벌고 둘 다 할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제 몸이 지치면 짜증이 애들한테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깐. <중략> 제가 어쨌든 이런 남편이랑 살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애들만큼은 똑같은 삶이 되풀이 안 되게 만드는 건데. 그것까지는 안 만들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요. 네. 적게 벌어도, 그 대신 남편한테 왜 이리 이것 밖에 못 벌었냐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연구참여자 7)

삶의 위로가 되어주는 자녀

남편의 수감으로 아내들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함을 느꼈다. 아내들은 시간이 갈수록 힘든 경제적 상

황과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지쳐갈 수밖에 없었다. 자녀를 지켜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자녀를 위해 혼신의 애를 쓰는 자신에게 오히려 짜증을 내는 자녀들이 때론 원망스럽고 밉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리어 자녀라는 존재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천임을 깨닫고 그러한 자녀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저는 이 애들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반듯하게 키워야 될 내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애들이 나를 살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나는 재를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중략>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아, 재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나를 살아가게끔 만들어주고 있구나.’ 그 생각이 박히고 난 뒤부터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애들이 밉지가 않았죠.” (연구참여자 7)

자녀양육에 필요한 현실적·정서적 지지 원천인 친정식구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동안 친정의 지원은 아내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처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친정언니도 있었고, 연구참여자 9처럼 남편의 변호사비와 같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친정 부모님도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17의 경우, 남편의 수감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친정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친정어머니와 아버지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주셨으며, 직장생활 때문에 혼자 있을 아이들을 잘 돌보아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친정의 다양한 도움을 통해 아내들은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많이 도와주죠 언니가. 화장품 이런 것도 전부 다 언니가 다 사주죠. 우리형편에 하나도 못 사 발라요. 엄마라고 보면 되요. 먹을 거 다 챙겨주고. 김치 다 갖다 주고. <중략> 언니가 한 번씩 와가지고 시장도 봐다주고. 언니가 보니까 안 됐으니까 내 동생 너무 고생하니까 와서 한 번씩 이렇게 시장 봐주고 언니가 많이 챙겨주죠.” (연구참여자 5)

자녀의 학업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

청소년 초·중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국가에서 학업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는 연구참여자들도 많았다. 심리적으로는 공단의 도움으로 개인 상담을 받으며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학원을 다니지 않는 출소자 자녀들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도서 지원, 대학생 멘토를 지원받고, 경제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받기도 하였다.

“실제로 큰애고 둘째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방과 후 공부를 다녔죠. 지금도 막내 같은 경우는 공부방 영어 수학 같은 거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는 되는 그 부분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중략>아이들 식비, 꿈나무 카드 해가지고 제가 점심을 못 챙겨 주니까 그 카드 가지고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3)

“그리고 다행히 신랑이 수감됐을 때 이제 보건복지부 전화해서 SOS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의료비는 80% 혜택을 받고, 차상위 그걸로 해서 받고, 애들 학교에서 좀 받고 있긴 한데, <중략> 무안군 복지과 담당자하고 상담해 가지고 이렇게 애가 셋인데 힘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달라고 해서 작은 애한테 이제 장학금 10만원씩 나오는 게 있고 녹색우산인가 어디선가 장학금 나오고.” (연구참여자 10)

“그때 제가 할 때는 한 부모 가정 그렇게 해서 되었어요. <중략> 지금도 받고 있는데 그제 금액은 크지 않고 한 40만원 정도? 네 주거급여하고 생계급여하고 주거는 집 월세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정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1)

자녀 교육이 삶의 우선순위

남편은 출소 이후 아내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가정의 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랐지만, 아내는 자녀들이 남편과 똑같은 삶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한창 학업에 몰두해야 할 자녀 양육을 위해 살림에만 전념하였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 생각하며 자녀 양육에만 전념해야 할지 아니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아내들도 있었다.

“제가 어쨌든 이런 남편이랑 살면서 지켜지는 게 애들만큼은 똑같은 삶이 되풀이 안 되게 만드는 게 그건데. 그까지는 안 만들려고 그래요. 안 나가려고요. 네, 적게 벌어도, 그 대신 남편한테 왜 이리 이것 밖에 못 벌었냐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이게 왜 이리냐 소리는 한번도, 제가 안 벌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7)

자녀 특성 및 상황별 수감사실 고지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한창 민감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버지가 외국에 나갔다고 하는 등 억지스런 이유를 만들어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자녀에게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연구참여자도 있었고, 자녀의 성격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수감 사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 때 애들이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큰 애는 중학교 가고, 작은 애는 6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이래 이래 해서 이래 됐다고. 애들이 왜 우리가 그냥 잘 살다가 갑자기 엄마가 식당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걸 다 받아들이다더라고요. 그 때부터 애들한테 저는 다 그대로 얘기를 다 해요. <중략> 근데 아빠가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래 이래 잘못 되서 부도가 났다 이런 거부터 애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럼 애들이 그걸 듣고 또 나름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4)

자녀 연령별 수감사실 고지

남편의 수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큰 고민이었다. 다자녀의 어머니인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자녀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남편의 수감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아버지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벌기위해 나갔으며 둘러대곤 하였다.

“둘째, 셋째는 몰라요. 다행히 감사했던 게 배를 타러 갔었잖아요. 배를 타러 가면 한 삼 개월, 사 개월 있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아빠 배타러갔어?’ ‘응 배 타러 좀 멀리 갔어.’ 이렇게 얘기가 됐고.” (연구참여자 7)

“애들은 아직도 아빠가 들어갔다 나온 지 몰라요. 아빠가 빗 갠기 위해서 돈 벌러 갔다고 제가 얘기하고. 애들한테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리이러해서 안 좋아졌으니 너희들이 절약을 해야 된다 하고 알려줬어요. <중략>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점인데 한참 사춘기라 또 아빠가 들어갔는데 그건 별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참 그 나이에 또 그런 생각이 많을 텐데 괜히 고민만 안겨줘서 반항심만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 싶어서” (연구참여자 10)

아버지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아버지의 수감 이후,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성장기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있는 가정환경만 못하다고 느꼈다.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기간 동안 남편과 자녀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아버지가 없는 교육은 제가 가정환경을 아무리 좋은 학원을 대줘도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인생은 만들어가야 되고 어차피 애들 인생을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바르게 살면서 만들어가고 서로가 께이고 부딪혀서 만들어가는 거지 그죠?” (연구참여자 7)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또 편지를 했었어요. 와이프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으니까 걔들 마음도 어느 정도 내가 알 수 있었고, 편지를 통해서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아빠의 자신감을 보여주니까 자기들도 비록 지금은 여기서 살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연구참여자 11)

자녀양육에 절실한 교육비 및 생계비

남편의 수감 이후부터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

려움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였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연구참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수감으로 인한 생활고가 더욱 극심하였다. 이러한 생활고는 한창 성장하고 학업에 집중해야 할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걸로 인해서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인거 같아요. <중략> 아이들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예능 쪽으로 악기 쪽으로 하나씩 배울 수 있게 해서 자기의 속을 털어 놓을 수도 있게 하고 싶어요. 사실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전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연구참여자 3)

자녀의 학업지원을 위해 국가와 학교의 지원을 바랍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모든 부모들이 고민이지만, 특히 수감자 아내들은 자녀의 교육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생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자녀의 학원이나 교육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을 위해 국가 및 학교에서는 출소자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교육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생 과외, 참고서, 교복, 인터넷 교육 지원 등을 바라기도 하였다.

“실제로 큰애고 둘째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방과 후 공부를 다녔죠. 지금도 막내 같은 경우는 공부방 영어 수학 같은 거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머리는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그래도 저는 애들 교육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중략> 학원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아요. 큰 학원도 바라지 않고, 영, 수만 잡아주면. 수학도 따라가지더라고요 늦게라도 하니까 따라가지던데 영어를 놓쳐버렸어요. <중략> 과외를 계속 해주던지요. 그 땐 안 해줬었거든요. 나오니까 해주더라고요. 차라리 대학원생 과외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중략> 그 전부터 경제적인 부분과 공부 딱 끊기는 부분에서

지 적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가 집에서 문제집 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런대로 따라갔어요. 갔는데 중학교는 진짜 자기 공부잖아요.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학교서는 제가 볼 때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외에 집에서는 노력을 안했어요.” (연구참여자 7)

“대학원생이 직접 집에 방문해서 시간적으로 계획 잡아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라면 좋겠지만, <중략> 그니깐 이제 그런 거겠죠 학원을 못 다니잖아요. 학원을 못 다니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인터넷 그런 요즘은 인터넷 교육들도 많잖아요 사교육관련해서. 그런 걸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중략> 학기 초에 딱 해서 타이밍 맞춰서 그 도서구입 한다고 아니 생똥맞게 중간에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무작정 인위적으로 골라서 그 한도 내에 골라서 무작위로 사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들 알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끝나는 상황에서 기말고사가 앞으로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기말고사 교재를 지금 당장 선생도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한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고르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고르겠냐 이거죠. 그런 것은 현실에 좀 맞지 않는 정책 같아요.” (연구참여자 11)

취업지원이 시급함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이 출소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적응을 잘 하지 못하자 또 다시 어려움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 당사자의 취업은 물론 출소자 남편의 취업 알선 및 교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저는 일자리 같은 경우도 도움을 주었으면... (어디 남편 아니면 아내?) 아내. 뭐 자격증 그런 쪽도 괜찮고 교육이 있었으면. (아 당사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네 네 배우자도 같이. <중략> 그만큼 어려워졌으니깐.. 일 해야죠. 이제 (웃음) 혼자서는 힘드니까 둘이 가야하니까.” (연구참여자 11)

2.1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출소자 아내의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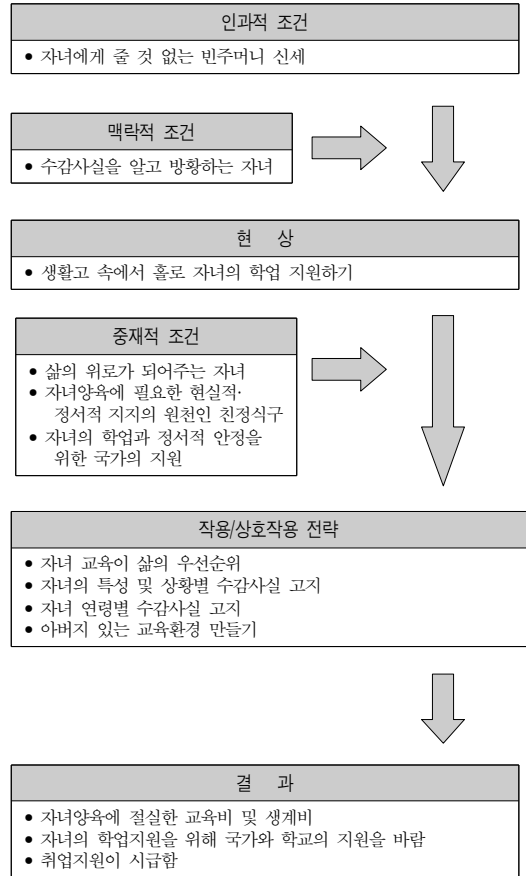


그림 2. 출소자 아내의 초·중기 청소년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생활고 속에서 홀로 자녀의 학업 지원하기라는 현상에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들로「자녀에게 줄 것 없는 빈주머니 신세」를 상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창 성장기 자녀에게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생활고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9]와 같다.

표 9.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녀에게 줄 것 없는 빈주머니 신세	강도	강함-약함

맥락적 조건은 「생활고 속에서 홀로 자녀의 학업 지원하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수감사실을 알고 방황하는 자녀」를 상정했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0]과 같다.

표 10.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수감 사실을 알고 방황하는 자녀	강도	강함-약함

현상으로는 「생활고 속에서 홀로 자녀의 학업지원하기」로 상정했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11]과 같다.

표 11.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생활고 속에서 홀로 자녀의 학업 지원하기	강도	강함-약함

중재적 조건은 「삶의 위로가 되어주는 자녀」, 「자녀 양육에 필요한 현실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의 원천인 친정식구」, 「자녀의 학업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2]와 같다.

표 12.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삶의 위로가 되어주는 자녀	영역	전부-일부
자녀양육에 필요한 현실적 정서적 지지의 원천인 친정식구	강도	강함-약함
자녀의 학업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국가의 지원	강도	강함-약함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자녀 교육이 삶의 우선순위」, 「가정의 역경과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녀의 성향을 고려하여 수감사실 알리기」, 「자녀 연령별 수감사실 고지」, 「아버지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13]과 같다.

표 13.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녀 교육이 삶의 우선순위	적극성	적극적-소극적
자녀의 특성 및 상황별 수감사실 고지	강도	강함-약함
자녀 연령별 수감사실 고지	강도	강함-약함
아버지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영역	전부-일부

결과는 「자녀양육에 절실한 교육비 및 생계비」, 「자녀의 학업지원을 위해 국가와 학교의 지원을 바람」, 「취업지원이 시급함」으로 나타났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14]와 같다.

표 14.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녀양육에 절실한 교육비 및 생계비	강도	강함-약함
자녀의 학업지원을 위해 국가와 학교의 지원을 바람	강도	강함-약함
취업지원이 시급함	강도	강함-약함

3. 후기 청소년기/성인기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기술

후기 청소년기/성인기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경험은 최종적으로 25개의 개념과 16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5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표 15. 후기 청소년기/성인기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기술

개념	하위범주	범주
대학도 포기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빠 때문에 적금도 깨고 시집도 못 가게 생겼다고 아버지를 원망 함	자녀가 대학도 결혼도 포기함	희생된 자녀의 꿈
남편의 수감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성인 자녀	성장한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인식하게 됨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만큼 성장한 자녀
남편의 수감으로 사춘기 자녀가 문밖도 발로 차고 고기 사줄 돈도 없는데 고기를 찾음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고 분노함	아버지 수감사실로 인해 분노하는 사춘기 자녀
고등학생 자녀가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알게 된 후 상처받아 지금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음		
남편이 출소한 이후 자녀와 트러블이 생김. 어머니와 있을 때는 잘 지냈는데, 아버지가 출소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에 참견하는 것처럼 느껴짐. 자녀가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함	출소 이후 가족 간 갈등이 생김	사춘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갈등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까 염려됨	남편의 수감으로 부정적 영향이 염려되는 자녀의 미래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만 할뿐 꿈조차 지원할 수 없는 자녀의 미래
생계유지만으로도 힘이 벅차서 자녀 공부시	자녀에게	무기력함

개념	하위범주	범주
킬 어려움이 없음	아무것도 해줄 어려움이 없음	생활
출소 후 사위도 생기고 손주도 보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기쁨	사위와 손주가 힘이 됨	늘어난 가족이 주는 힘
이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과외 및 진로상담을 받음	친정식구들이 진로지도 및 학업 등을 지원해줌	남편의 빈자리에 자녀의 멘토가 되어준 친정식구
남편 수감 기간 동안 친정에 들어가서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편의 빈자리를 메꿔주었음	학교 선생님이 가출한 자녀를 돌봐 줌	방황하는 자녀를 붙잡아준 선생님의 지원
남편 수감에 대한 여파로 청소년기 자녀가 가출과 오토바이 폭주를 하며 힘들어할 때 남편은 없었지만 담임선생님의 관심으로 변화됨	학교 선생님이 가출한 자녀를 돌봐 줌	방황하는 자녀를 붙잡아준 선생님의 지원
어머니와 자녀가 갈등 시 자녀가 집을 나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달려서 집으로 돌아옴	학교 선생님이 가출한 자녀를 돌봐 줌	방황하는 자녀를 붙잡아준 선생님의 지원
선생님이 자녀의 진로 상담을 해주심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줌	가족의 재정에 보탬을 주는 자녀	직장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
출소 후, 두 딸이 TV도 사주고 자력으로 시집 감		
자녀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남편의 수감 사실을 말하지 않음	자녀가 남편의 수감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림	고등학생 자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감사실 숨기기
자녀가 성인이 돼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남편의 과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사춘기가 지난 자녀에게는 대화도 하고 면회도 교대로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정서안정에 도움이 됨	사춘기가 지난 자녀는 아버지와 교류하게 함	사춘기가 지난 자녀에게 수감사실 알리기
첫째도 둘째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최고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림	생계비 지원을 희망함
빛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황이라 마음이 늘 불안함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 힘든 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 필요	하소연할 곳이 없음	상담지원을 바람
당장은 가정 경제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때려내고 경제적인 문제로 상담 받기 어렵지만, 상담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받고 싶음		
출소 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받길 바람	취업지원이 시급함	출소한 남편의 취업지원을 바람
수감 중 열심히 생활한 덕에 주저 지원을 받아 출소 후 생활이 나아지자, 어찌되었든 3%안에 들어 주저지원을 받기 위해 아버지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도와준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를 인정해준 자녀들	모범수로서 자녀의 인정을 받으며 돈독해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아버지를 인정한 자녀들

희생된 자녀의 꿈

아버지의 수감은 자녀들의 인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 2 자녀의 경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가고 싶었던 대학마저 포기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수감된 아버지 때문에 적금을 깨야만 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 2의 자녀는 결혼까지도 할 수 없게 되어 수감된 아버지를 원망하며 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큰 딸이 눈물을 좀 흘렸었어요. 자기는 대학도 못가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직장 다니고 이러는데 시집도 못가고 아빠가 필요하다면 적금 들어놓은 것도 다 쥐야하고 난 돈도 없는데 아빠는 왜 구속되고 그러냐고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되냐면서 애가 울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만큼 성장한 자녀

영유아기/학령전 아동기자녀와 다르게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남편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음지, 이로 인해 방황하거나 벗어나지는 않음지에 대해 마음 한쪽에 불안과 걱정을 늘 안고 살아가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4는 남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자녀가 아버지를 안 좋게 생각할까봐 자녀를 다독거리주면서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17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해외에 있다고 둘러댔지만 아버지가 해외에 간다고 했으면 왜 말을 하지 않았냐며 추궁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고 보고하였다. 엄마 아빠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 자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빠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아빠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봐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독거리주게 되고 <중략> 만약에 특별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애들이 혹시라도 나쁘게 생각하고 벗어나갈까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래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안 편했죠.” (연구참여자 4)

“큰 아이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에서도 기사가 나오고 뉴스에도 기사가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아이는 알아서 상처를 좀

받았고. 둘째, 셋째는 아빠 친구가 해외에 있으니까 해외에 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큰 애한테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큰 애는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아빠가 외국에 간다 그러면 말을 하고 가지 않았겠나 그러면서 막 저를 추궁을 하더라고요. 나중엔 이젠 사실을 다 알았죠. 그거를 (그 자녀분만?) 네.” (연구참여자 17)

수감사실로 인해 분노하는 사춘기 자녀

한창 예민한 사춘기의 시기를 겪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더 예민해 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 2와 자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연구참여자 2는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한편으론 혼자 사춘기 자녀의 반항을 견뎌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다.

“애들이 사춘기고 그러니까 없을 때 밥을 더 찾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뭐 아무리 잘 차려봐도 반찬이 많을 때는 별로 저기하지 않는데 없을 때는 반찬투정하고 그러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아들이 학교 청소년 시절에 오토바이 타다가 세 번씩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중략> 아무래도 저는 아들을 다루기가...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난폭하고 어쩔 때는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문짝도 발로 걷어차고 애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제 먹는 것도 고기 사줄 돈은 없는데 고기 더 찾고 지금은 고기 차려봐도 안 먹어요. 없을 때는 왜 고기반찬 없냐고 그러고.” (연구참여자 2)

사춘기 자녀와 아버지의 갈등

수감된 남편 때문에 홀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의 출소를 기다려온 아내들은 남편 출소 이후에 남편이 자녀와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 17은 남편 출소 이전에는 자녀와 같이 외식을 나간다가나 영화를 보러 나가는 등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기도 했는데 남편이 출소한 이후부터 오히려 가족 내에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생겼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출소 이후 또 다른 자녀양육의 고충을 겪었다.

“그러니까 충격이죠, 자기 판에도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되게 바르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이슈화 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스스로도 되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중략> 아빠 같은 경우는 그 시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가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주고 이럴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고생시키고 온 가족을 다 이렇게 고생시킨 장본인이라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서로 좀 뼈따하게 하는 경향도 좀 있고. <중략>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연구참여자 17)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만 할뿐 꿈조차 지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생활

연구참여자 2들은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다. 연구참여자 2들은 남편의 수감 사실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취업이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삶에 남편의 수감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으며, 현재로써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뭔가 문제가 생길까 그것도 이제 걱정이고. <중략>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와서 그런 거는 감수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상황인데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짐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이 좀 두렵다는 거죠.” (연구참여자 17)

그러나, 연구참여자 2들은 남편이 수감된 직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려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급했기에 자녀들의 꿈을 위한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연구참여자 13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 속에서 자녀를 도와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염치가 없다고 느껴 자녀의 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없음을 보고하였다.

“지금 현재 합숙소로 60만원씩 보내고 있거든요. 기

숙사비 해 갖고 60만원씩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동하니까 이왕이면 잘 먹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죠.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합숙소비 보내놓거나면 신경써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지 스스로 헤쳐 나가라고 놔두는 길밖에 없죠. <중략> 지도 되도록 납부금이 적은 국립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0)

늘어난 가족이 주는 힘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출소자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2는 어느덧 큰 딸들이 결혼하여 사위가 생기고 이제는 손주들도 생겨 힘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남편의 수감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것에 대해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받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다보니까 출소하고 사위도 두 명 생기고 두 달 전에 손주도 보고 애들이 너무 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같아요. 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중략> 마침 우리 큰 사위가 좀 잘 됐어. 큰 사위가 큰 애가 에스케이 다녔었는데 난 두 딸 시집보내면서 거짓말 아니고 1원도 안냈어요. 오히려 딸들이 텔레비전 사주고 뭐 사주고 다 해주고 시집을 간 거야. (연구참여자 2)

남편의 빈자리에 자녀의 멘토가 되어준 친정식구

남편의 수감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홀로 남겨져 힘든 생활을 직면하게 되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부분도 감당해야 했으며 자녀들의 양육도 홀로 도맡아야 했다. 갑자기 늘어난 삶의 짐으로 힘들어하던 이들은 영유아기/학령전 아동기자녀와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친정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참여자 10의 경우 학원 강사인 이모를 통해서 자녀의 학업과 진로 상담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연구참여자 17의 경우에는 남편의 수감 직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여 친정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절약하였고, 친정 부모님이 부재중인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해주었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친정식구들이 자녀

들을 돌보아줄 수 있어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수월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친정의 도움 덕분에 연구참여자들은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뭐 살던 거주지 다 내놓고 친정으로 이제 들어가서 한 1년, 1년 6개월, 한 2년 가까이 살았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친정식구들이 많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고 일단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아빠가 없는 울타리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메워주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 다니는데 아무래도 애들을 많이 봐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수월했던 것 같죠.” (연구참여자 17)

방황하는 자녀를 붙잡아준 선생님의 지원

예민한 시기의 고등학생 자녀는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후 오토바이 폭주를 하다 다치거나 가출하는 등 방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그저 지켜만 봐야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가슴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상황이라 홀로 어떻게 이겨낼지 막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은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연구참여자 2 자녀의 학교 선생님은 ‘사표를 내더라도 아들의 오토바이를 압수하겠다’고 까지 말하며 적극적으로 자녀를 챙겨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었고, 연구참여자 10은 가출한 자녀를 학교 선생님이 직접 데리고 와주시고 아이의 진로상담을 해주셨다.

“오토바이에서 세 번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오토바이 치워라 그래도 학교 선생님께서 내가 내일 사표 내더라도 니 오토바이를 압수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아버지 없는데 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중략> 아르바이트를 미성년자가 하면 절대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 12시까지 붙잡아주고 공부하니까 게임도 저절로 다 끊고.” (연구참여자 2)

직장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

남편의 수감 직후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남편도 없이 홀로 남아 가장으로서의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짊어져야만 했다. 또한

이들은 자녀들이 있었기에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하였다. 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느덧 성인이 된 자녀가 직장인이 되고 집안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둘째는 그 때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개가 공과금 다 내고 <중략> 우리 아들도 대학 못가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방위 산업체 가서 군대 문제도 3년 돈 벌면서 해결하고 야간대학 들어가서 아빠 기다리세요. 대기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2)

고등학생 자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감사실 숨기기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 사실을 자녀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여 숨겨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연구참여자 10은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공부하는 시기라 남편의 수감 사실이 자녀를 힘들게 할 것 같아 수감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17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남편의 수감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음에 근심이 차면 집중을 못 하잖아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중략> 개는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안 알리고 그냥 아빠는 빛이 많기 때문에 빛을 갠으려 갔다고만 얘기했지. 아이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도 다른 친구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는 우리 아빠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면 또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중략> 그러니까 나중에 지내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했을 때 그 때 가서 아빠 그 때 그랬다고 얘기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어린 나이에 굳이 공부만 해야 할 때 그런 사념을 넣고 싶지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10)

“아빠의 과거가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그 게 제일 걱정한 것 같아요. 애들이 성인이 돼서 ‘아.. 그 래 아빠가 몇 년 없었을 때가 그 생활이었구나.’ 하면은

그 심리적인 충격이 덜 하겠죠. 그 때는 성인이 돼서 자기도 사회생활 하다보면 아 ‘아빠가 이래서 돈의 유혹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알려지는 게 싫고..” (연구참여자 17)

사춘기가 지난 자녀에게 수감사실 알리기

연구참여자들 중 일부는 남편의 수감 사실을 숨긴 반면 일부 성인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은 사실대로 자녀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 2는 자녀들에게 남편의 수감 사실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의 교류가 자녀들의 정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자녀들도 직접 아버지를 만나러 면회도 가고 대화를 나누는 환경을 만들었다.

생계비 지원을 희망함

경제적 어려움은 수감자 아내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였다. 주로 집안 경제활동을 담당하던 가장의 수감으로 인해 남아있는 가족은 생활고를 겪으며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 연구참여자 4의 경우 가장 힘든 문제는 첫째도 둘째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아내는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보고하였다.

“경제적으로 없다 보니까 빚도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들도 오고 이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냥 남한테 빚만 없으면 괜찮은데. 남한테 빚도 있고 그러니까. 빚도 어느 정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이제 다 갚지 못하니까 항상 마음으로 그렇게 불안한 거죠.” (연구참여자 4)

상담지원을 바람

아내들은 남편의 수감으로 경험하는 어려움 등을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라도 알리고 싶었지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아내들도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어디에 말할 수도 없어 힘들어하는 아내들도 있었다. 수감자의 아내들처럼 어디에 털어놓을 수 없어 끙끙 앓고 있는 힘든 이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하였다. 연구참여자 4의 경우, 지금 당

장은 가정의 생계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하느라 시간을 따로 내어 상담 받기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상담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면 상담을 받고 싶다고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에서는 이런 시간 가져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상담이나 부인에 대한 상담...)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제시해주고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하는 것도 좋은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 걸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이라도 하고 그러면 나름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중략>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당장 일단은 생활 경제적인 게 다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시간을 내고 그런 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연구참여자 4)

“그래서 제가 심리치료를 좀 받아 보는 게 낫지 않나. 아무래도 그러면 속에 다 털어놓고 나한테도 못하는 얘기 있을 거고 친구한테 못하는 얘기 있을 텐데. 의사한테 가서 해라 그러면. 그랬더니 여기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거 받고 나서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당사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도 필요하다고. 가족프로그램도 하나 신설해달라고 얘기를 좀 해줘라. 저도 솔직히 이제 저는 뭐 성인이니까 쿼트롤이 되는데 큰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큰애를 좀 보내봤으면. 그랬던 거죠. <중략> 그리고 아빠가 나온 다음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서로가 없었던 시간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게 아니고 나도 힘들었고 애들도 힘들었다는 거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구참여자 17)

출소한 남편의 취업지원을 바람

영유아기/학령전 아동기자녀와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후기 청소년

년기/성인기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도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는 출소자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아내들에 대한 취업 지원의 필요를 공통적으로 구술 하였다.

“그런데 대부분 아주 잘 사는 집이 아닌 다음에는 아빠가 가장이 이제 수감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거는 다 자명하잖아요. 경제적인 그런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더 힘들어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배움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을 해준단든지 그런 후원을 이래 하면서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저도 얘기 아빠 그리되고 나서 제가 음식, 요리를 막 배웠어요. 배우러 다니면서.” (연구참여자 4)

열심히 살고자 하는 아버지를 인정한 자녀들

아버지가 과거의 잘못으로 수감되었지만, 그래도 수감 중 열심히 생활하는 바른 모습을 보였고 그로 인해 모범수로 인정받아 출소 후에 주거 지원을 받아 출소 후 생활이 좀 나아지게 되었다. 주거지원을 받기 위해 3% 안에 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인정해주었다.

“거의 애들 도움 안 받고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더 가족이 좋아졌던 건 정부 덕이야. 이 집을 짓기 때문에 애들이 더 좋아진 거지. 만약에 우리가 뭐 사글세를 가서 쪼들리고 그랬으면 좀 그랬을 텐데 애들이 또 인정을 한 거야. 난 그게 더 고맙지. 그래도 아버지가 어떻게 간에 열심히 사시려고 했으니까 공단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중략> 법무부가 고맙다는 걸 애들이 느끼지. 물론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이런 것도 해줬지만 3%안에 들어야 해준다는 말을 해줬죠. 그래서 애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간에 3% 안에 들어갔다는 자체를 애들이 인정하는 거지. <중략> 근데 청소하러 오는 날 키를 받아서 식구들 다 와서 청소하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거꾸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잘해줘서 이런 거를 준거다 그러니까 뭐 애들이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할 일이 전혀 없죠.” (연구참여자 2)

3.1 후기 청소년/성인기 자녀를 둔 출소자 아내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출소자 아내의 후기 청소년/성인기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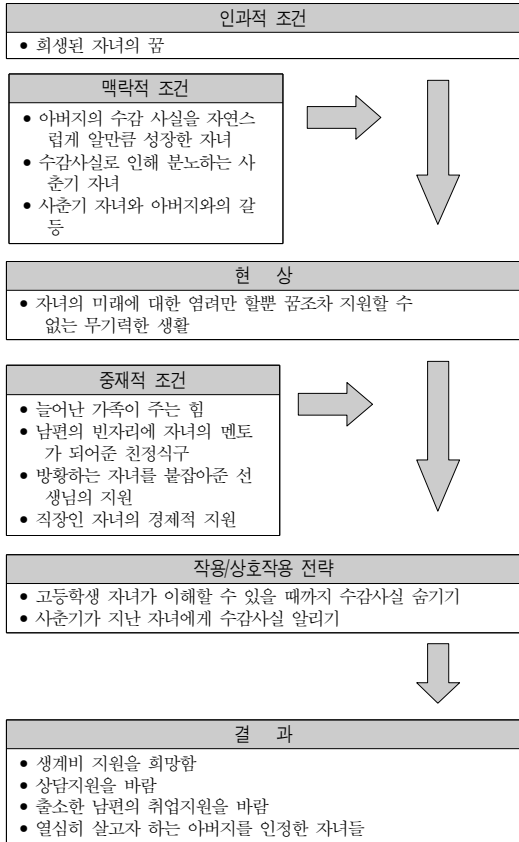


그림 3. 출소자 아내의 후기 청소년/성인기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자녀의 미래에 대해 염려만 할 뿐 꿈조차 지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생활이라는 현상에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들로「희생된 자녀의 꿈」으로 상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대학입학이나 취업 등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6]과 같다.

표 16.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희생된 자녀의 꿈	강도	강함-약함

본 연구에서「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만 할뿐 꿈조차 지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만큼 성장한 자녀」,「수감사실로 인해 분노하는 사춘기 자녀」,「사춘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갈등」을 상정했다.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7]과 같다.

표 17.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만큼 성장한 자녀	영역	전부-일부
수감사실로 인해 분노하는 사춘기 자녀	강도	강함-약함
사춘기 자녀와 아버지와의 갈등	깊이	깊음-얕음

현상은「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만 할뿐 꿈조차 지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생활」로 상정했다. 현상의 속성과 차원은 [표 18]과 같다.

표 18. 현상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만 할뿐 꿈조차 지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생활	기간	지속적-일시적

중재적 조건은「늘어난 가족이 주는 힘」,「남편의 빈자리에 자녀의 멘토가 되어준 친정식구」,「방황하는 자녀를 붙잡아 준 선생님의 지원」,「직장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은 [표 19]와 같다.

표 19.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늘어난 가족이 주는 힘	강도	강함-약함
남편의 빈자리에 자녀의 멘토가 되어준 친정식구	강도	강함-약함
방황하는 자녀를 붙잡아준 선생님의 지원	강도	강함-약함
직장인 자녀의 경제적 지원	강도	강함-약함

작용/상호작용 전략은「고등학생 자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감사실 숨기기」,「사춘기가 지난 자녀에게 수감사실 알리기」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은 [표 20]과 같다.

표 20.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고등학교 자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감사실 숨기기	영역	전부-일부
사춘기가 지난 자녀에게 수감사실 알리기	영역	전부-일부

결과는 「생계비 지원을 희망함」, 「상당지원을 바람」, 「출소한 남편의 취업지원을 바람」, 「열심히 살고자 하는 아버지를 인정한 자녀들」로 나타났다. 결과의 속성과 차원은 [표 21]과 같다.

표 21. 결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생계비 지원을 희망함	강도	강함-약함
상당지원을 바람	강도	강함-약함
출소한 남편의 취업지원을 바람	강도	강함-약함
열심히 살고자 하는 아버지를 인정한 자녀들	적극성	적극적-소극적

IV. 논의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아내들을 대상으로 남편 출소 전후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른 양육 경험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근거이론 방법은 사건이나 행위에 대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녀 발달수준에 따라 자녀양육 경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그에 대한 반응들이 어떻게 다른지 탐색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41]. 이를 바탕으로 남편의 수감과 출소 이후 자녀의 발달 수준별로 출소자 아내들이 경험한 고통과 어려움의 차이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참여자 자녀의 나이를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학령기/초·중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기/성인으로 분류하여 개방코딩과 축코딩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방코딩은 원자료를 분석하여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의 경우, 『슬피할 겨를 없이 맞게 된 생활고』, 『자녀 미래의 걸림돌 남편』 등 총 10개의 범주로 정리하였고, 학령기 아동/초·

중기 청소년의 경우 『자녀에게 줄 것 없는 빈주머니 신세』, 『수감사실을 알고 방황하는 자녀』 등 총 13개의 범주로 정리하였다. 후기 청소년기/성인기는 『희생된 자녀의 꿈』,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만큼 성장한 자녀』 등 총 15개의 범주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남편의 수감을 감당하면서 자녀양육 또한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녀의 발달 수준 따라 경험하는 고통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차별화된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첫째로,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를 둔 수감자 아내들은 남편 수감 이후 어린자녀를 홀로 돌봐야 한다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매우 컸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막막함과 외로움에 휩싸이곤 하였는데, 이러한 심리 내적 갈등은 연구참여자들이 자녀와 건강한 소통 및 관계를 맺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부모가 양육 스트레스를 느끼면, 자녀에 대한 태도와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양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약화시키고,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42]. 또한, 어린 자녀를 둔 연구참여자들은 옅친 데 덮친 격으로 가정의 경제력을 담당하는 남편이 수감되면서, 압도된 마음을 추슬러 가며 생활비 마련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양육자는 주로 조부모가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연구참여자 9).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의 발달 단계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6세 자녀는 부모와의 부적절한 분리로 인한 불안감, 사회·정서적 발달상의 손상, 민감한 스트레스 반응행동 등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4] 실제로,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수감 이후 어린 자녀가 기존과 다르게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유아기는 언어, 사회성, 창조성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아동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43][44], 수감자 자녀들은 이처럼 한쪽 부모나 조부모, 또는 자녀끼리 방치되는 취약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45].

또한, 수감자 가정의 경우 이혼가정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혼가정의 유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

여 주로 식욕장애와 소화 장애를 일으키며, 걸음마 시기에 공격적이고 민감하며 퇴화된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46]. 이 시기의 유아들은 이혼의 책임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나머지 부모 한명도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공포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공포는 부모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표출되면서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46], 이러한 측면에서 수감자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 정서적 발달을 위한 지원은 특히 매우 필요하고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편이 출소한 이후에도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연구참여자 1의 경우 남편이 수감 전부터 알코올중독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시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이 출소 이후에도 반복되었는데, 이러한 남편의 행동을 자녀가 보고 자라면서 닮아가지 않을까 매순간 노심초사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구술하였다. 출소 전에는 어린 자녀들을 홀로 돌보는 것이 너무 고되고 벅차서 수감된 남편이라 하더라도 심적으로나마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출소 이후에는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불가피한 연대를 하면서도 또 다른 고충이 깊어져 갔다(연구참여자 14, 15). 또한, 남성출소자들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조직에 적응을 어려워하며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는[47]. 선행연구들은 남편 출소 이후까지도 출소자 아내들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를 둔 수감자 아내들은 홀로 자녀를 돌보며 겪어내야 할 심적 어려움이 매우 컸다.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수감자의 대부분은 자녀를 두고 있으며, 수감자 80% 이상이 자녀와 함께 살다 수감되었고[7], 열 살 미만의 어린 자녀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48]. 부모와의 신뢰와 애착, 그리고 건강한 사회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자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수감자 아내를 위해서는 남편 수감이후 어린자녀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와 건강한 애착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린자녀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위해서는 양육자 스스로의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

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자녀 돌봄 서비스,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령기 아동/초·중기 청소년 자녀를 둔 수감자 아내들은 남편의 수감이라는 심리적 충격에 더하여 홀로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학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49]. 이 시기의 자녀 또한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고, 학교 환경 적응, 학업 성취 등 영유아기/학령 전 아동기 아동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생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출소자 가정의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7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수감 사실을 인지한 후 또래 친구들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학교 적응이 어려워 상담을 받고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부모의 교도소 수감에 따른 자녀의 발달단계별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7~10세 자녀들의 경우 부정적 자아감, 발달상 퇴행, 민감한 스트레스 반응행동, 장애 충격 대응능력 손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11~14세 자녀들은 행동 조절력 부족, 충격에 반응적인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4]. 또한, 수감자 및 출소자 가정의 경우, 수감으로 인한 이혼가정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이혼가정의 학령기 자녀 반응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잘 소화하지 못하고 심리적 갈등이 주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며, 두통, 위장병 등이 많고 아직 정체성이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적립되지 않아 한쪽 부모에 대한 심한 분노와 나머지 한쪽 부모와의 동맹관계에 빠지기도 한다고 하였다[46].

한편, 수감자 아내인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가 한창 학업을 성취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게 하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느라 자녀의 학업관리를 소홀하게 하면서도 자녀를 그저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연

구참여자 7, 11). 한창 성장기에 있는 자녀에게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와 함께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까지 경험하기도 하였다(연구참여자 7)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교육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구술하였다. 이 시기에는 친정식구와 국가로부터 받는 도움 또한 자녀교육에 필요한 현실적 지원과 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도움이 가장 많았다(연구참여자 3, 7). 남편의 수감이라는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연구참여자 7, 11).

따라서 이 시기의 자녀를 둔 수감자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의 학습지원 및 적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대학생 멘토지원이나 도서지원,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자녀의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으나, 자녀가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학교 내 교사들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자녀들의 경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상태를 이해할 수 있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문요원의 개입이 필요하다[46].

셋째, 후기 청소년기/성인기 자녀는 아버지의 수감사실을 자연스럽게 알만큼 어느 정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수감은 자녀가 꿈을 한창 펼쳐가야 할 시기에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수감자 아내들은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자책과 심한 무기력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점은 후기 청소년기/성인기 자녀를 둔 수감자 아내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자녀들은 대학입학이나 결혼,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연구참여자 2).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자녀의 결혼에 아버지의 수감사실이 흠이 되지 않는까 막연하게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취업을 앞두고도 아버지 수감사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까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연구참여자 17). 그러나, 청소년기는 성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고, 사회역할의 변화와 학업에 대한 압력, 진로에 대한 준비 등으로 인해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과정 자체만으로 어려움이 크다[50]. 이런 측면에서, 후기 청소년기/성인기 수감자 자녀들의 심리적 갈등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었다. 부모에 아직은 의존해야 할 나이에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더 이상 의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범죄로 인하여 자녀 또한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의 수감으로 인해 힘든 어머니를 돕고자 스스로 동생을 돌본다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역경을 긍정적으로 이겨나가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연구참여자 3).

이러한 측면에서 후기 청소년기/성인기 자녀를 둔 수감자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가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수감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이 자신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새로운 통찰이 생길 수 있도록 학교 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 자녀라는 낙인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진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감자 아내의 경우에는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및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자책감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자녀의 발달수준에 따른 수감자 아내의 자녀양육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출소자 자녀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출소자 자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연령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한계점은 본 연구 참여자가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의 아내

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로는 출소자 가정 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출소 이후 가정이 유지되는 사례만 분석되었지만, 추후에는 이혼가정이나 자녀들만 거주하는 사례 등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출소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출소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6.
- [2] 이동훈 외,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모델 정립과 모델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 2015.
- [3] 신연희, “부모의 교도소 수용에 따른 자녀들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출소준비 수행자 및 출소자 대상조사,” 한국아동복지학, 제51호, pp.219-249, 2015.
- [4] S. Bilchik, *Mentoring: A promising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Prisoners*, Research in Action, Vol.10, pp.03-28, 2007.
- [5] 여성한국사회연구소, *가족과 한국사회: 변화하는 한국가족의 삶 읽기* 경문사, 2000.
- [6] P. Boss, *Family Stress Management*,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98.
- [7] 신연희, 전영실, 김영식, “수용자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0호, pp.203-225, 2008.
- [8] A. Geller, C. E. Cooper, I. Garfinkel, O. Schwartz-Soicher, and R. B. Mincy, “Beyond absenteeism: Father incarceration and child development,” *Demography*, Vol.49, No.1, pp.49-76, 2012.
- [9] A. I. Solomon and J. Zweig, *Children of paren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hildren at risk*, Bethesda, MD: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06.
- [10] L. A. Sroufe, *The role of infant-caregiver attachment in development*,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18-38, 1988.
- [11] 신연희, 변호순, “아버지의 수용과 자녀들의 문제행동,” 교정연구, 제63호, pp.145-171, 2014.
- [12] 문성희, 이대균,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겪는 어려움, 그리고 바람,”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pp.313-335, 2011.
- [13] 최윤진,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12권, 제3호, pp.59-74, 2015.
- [14] 황은숙, “서울시 한부모 가정 실태 조사 연구,” 한부모가정연구, 제1권, 제1호, pp.1-34, 2006.
- [15] B. Bloom and D. Steinhart, *Why Punish the Children?: A Reappraisal of the Children of Incarcerated Mothers in America*,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1993.
- [16] D. Johnston, *Effects of parental incarceration.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New York: Lexington Books, pp.59-88, 1995.
- [17] C. J. Kampfner, *Post-traumatic stress reactions in children of imprisoned mother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pp.89-100, 1995.
- [18]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People of Faith Mentoring Children of Promise: A Model Partnership Based on Service and Community*, 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2004.
- [19] N. Garnezy,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Vol.56, No.1, pp.127-136, 1998.
- [20] A. S. Masten, D. Miliotis, S. A. Graham-Bermann, M. Ramirez, and J. Neemann, “Children in homeless families: Risks to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61, No.2, pp.335-343, 1993.

- [21] M. Comfort, "Punishment beyond the legal offender,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Vol.3, pp.271-296, 2007.
- [22] L. Lopoo and B. Western, "Incarceration and the formation and stability of marital un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67, No.3, pp.721-734, 2005.
- [23] E. Anderson, *Code of the Street*, New York: Norton, pp.107-141, 1999.
- [24] D. P. Farrington, "Developmental criminology and risk-focused prevention," In Maguire,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Vol.3, pp.657-701, 2002.
- [25] D. P. Farrington, J. W. Coid, L. Harnett, D. Jolliffe, N. Soteriou, R. Turner, and D. J. West, "Criminal careers up to age 50 and life success up to age 48: New findings from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Home Office Research Study, No.299, 2006.
- [26] R. Loeber, D. P. Farrington, M. Stouthamer-Loeber, and H. R. White, *Violence and serious theft: Development and prediction from childhood to adulthood*, Taylor & Francis, 2008.
- [27] R. J. Sampson and J. H. Laub, "Crime and deviance in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18, No.1, pp.63-84, 1992.
- [28] C. A. Smith and S. B. Stern, "Delinquency and antisocial behavior: A review of family processes and intervention research," Social Service Review, Vol.71, No.3, pp.382-420, 1997.
- [29] D. J. West and D. P. Farrington, *The Delinquent Way of Life: Third report of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Heinemann Educational Books, 1997.
- [30] C. W. Simmons,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RB note, Vol.7, No.2, 2000.
- [31] R. J. Havighurst,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1948.
- [32] S. H. Fishman, "The impact of incarceration on children of offenders," Journal of Children in Contemporary Society, Vol.15, No.1, pp.89-99, 1983.
- [33] 허경미, "주요국의 수형자가족 지원서비스 분석 및 도입모델," 경찰학논총, 제8권, 제2호, pp.329-354, 2013.
- [34]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 pp.51-77, 2014.
- [3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6789.html
- [36] J. W. Creswell, "Five qualitative approaches to inquiry,"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Vol.2, pp.53-80, 2007.
- [37] J. M. Morse and P. A. Field, *Nursing research: The application of qualitative approaches*, Nelson Thornes, 1995.
- [38] 이동훈, 전지열, 김주연, "수감자 아내들의 삶,"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2호, pp.295-325, 2016.
- [39] 이동훈, 전지열, 김주연, "아직도 가야 할 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2권, 제2호, pp.223-261, 2016.
- [40] E. G. Guba and Y. S. Lincoln,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81.
- [41] A. Strauss and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1990.
- [42] R. R. Abidin *Parenting Stress Index(PSI)*,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1990.
- [43] 김계숙, 김희숙, 이명숙, 김신정, 문선영, *아동간호학* 신광출판사, 1999.
- [44] 김희숙, 강경아, 김순애, 김신정, 김현실, 김현옥,

문선영, 양은영, 이명숙, 정혜경, *아동건강간호학*, 서울: 군자출판사, 2006.

- [45] 신연희, “부모수용 후 자녀들의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교정담론, 제10권, 제1호, pp.129-158, 2016.
- [46] 최윤진,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제12권, 제3호, pp.59-74, 2015.
- [47] 이동훈, 조은정, 양순정, 양하나,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7호, pp.303-319, 2017.
- [48] 박선영, 신연희,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연구총서, 제3호, pp.1-270, 2012.
- [49] 정명숙,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및 자녀성적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6호, pp.107-121, 2008.
- [50] M. D. Newcomb, G. J. Huba, and P. M. Bentler,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stressful life events among adolescents: Derivation and correlat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pp.400-415, 1981.

저 자 소개

전 지 열(Ji-Yeol Jeon) 정회원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상담전공(석사)
- 2008년 4월 ~ 2012년 3월 : 서울산업대학교 취업정보상담팀 전임상담원
- 2012년 3월 ~ 현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 서울산업대학교) 인재개발원 학생생활상담팀 팀장

▪ 2015년 8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재난심리, 외상 후 성장, 출소자 사회재적응

이 동 훈(Dong-Hun Lee) 정회원



- 2000년 9월 ~ 2006년 2월 : University of Florida(박사)
- 2006년 3월 ~ 2007년 8월 : 한국청소년상담원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 한부모 가정과 자녀, 출소자 가정, 재난심리, 트라우마, 위기 개입

양 하 나(Ha-Na Yang) 준회원



- 2016년 2월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2016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관심분야> : 출소자, 심리상담, 재난심리

김 주 연(Ju-Yeon Kim) 정회원



- 2013년 12월 : University of Iowa 심리학(학사)
- 2017년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상담교육 전공(석사)
- 2017년 8월 ~ 현재 : (주) 다인

<관심분야> : 출소자 가정, 재난심리, 트라우마